

# 여전한 ‘찬바람 불면 배당주’… 금리인하 수혜 기대감 ‘쑥’

코스피 고배당50, 한 달간 0.70%↑  
시가배당률 높은 증권·통신주 ‘강세’  
방어적 대응 필요… 배당주 ‘긍정적’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도 배당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선방하고 있다. 배당기준일 변경으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격언의 의미는 무색해졌지만 금리 인하 구간, 배당성향 개선 가능성 등이 엿보이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최근 한 달(9월 23일~10월 21일) 동안 약 0.70%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코스피 상장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종목으로 구성됐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배당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배당주 매력도 증가’ 이미지.

이외에도 시가배당률이 높은 증권·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KRX 증권’ 지수는 2.26%, ‘KRX 방송통신’ 지수는 1.3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45% 상승에 그쳤다.

과거 배당기준일이 12월에 말에 몰려 있어 10월부터 배당주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상법의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2023년 결산배당부터는 배당기준일을 12월 말에서 주주총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됐다.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 배당을 받게 되는 ‘깜깜이 배당 투자’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배당기준일이 내년 1분기로 늦춰졌지만 가을 바람과 함께 시작되는 배당주 투자 전략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연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국내 배당주 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며 “방어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배당주는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이 금리 인하 기조를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배당주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미국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것에 이어 이달 11일 한국은행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을 선언하면서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김영환 N

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며 “금리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와 배당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미흡한 성과로 지적받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배당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기업 수는 48곳으로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17.28%(12곳)가 늘어났다.

연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성장주보다 배당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 가치 제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배당성향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저가매수 타이밍”… 美 급락종목 매수세

###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2억4365만달러 어치 유입  
ASML, 실적부진 전망에도 순매수세

증시 불확실성으로 미국 배당주를 매수했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급락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종목이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0월 14~21일)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은 테슬라로 2억4365만달러 어치가 유입됐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배 ETF(TSL2)에 대한 순매수 금액은 1억6697만달러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인 티렉

스 2배 롱 테슬라 데일리 타겟 ETF(TSLT)에도 3015만달러어치가 몰렸다.

테슬라 주가가 이달 11일 자율주행 로보(무인)택시 공개 후 급락하자 서학개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한 11일 주가는 8.8% 급락한 이후 반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서학개미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이 실적부진 전망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638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ASML은 지난 15일 16.3%, 지난 16일 6.4% 각각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23일(한국시간 24일)에 있을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쏠려 있다. 실적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테슬라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

원은 “이미 3분기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올해 3분기 자동차 매출총이익률이 19% 이상 상승 등 수익성도 동반 회복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주가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고민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보택시 행사 이후 테슬라 주가는 단기 하락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출시 시기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존재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Unsupervised FSD)이나 사이버캡의 경쟁력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산업이 지닌 잠재적 부가 가치와 테슬라가 지닌 기술적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미래에셋운용, ‘조선TOP10’ ETF 상장

조선·기자재 기업으로만 구성

미래에셋자산이 ‘TIGER 조선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22일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TIGER 조선TOP10’ ETF는 국내 대표 조선주 중 선박 건조 관련 상위 1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 대형 조선주에 집중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상장일 기준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4종목 비중이 86%에 달한다. 기존 조선 ETF와 달리 선박 애프터 서비스, 해운 등 전후방 산업을 제외하고 ‘조선’과 ‘기자재’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업은 2008년 이후 20년만에 슈

퍼 사이클에 들어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조선사 주주 잔고는 코로나 이전 대비 60% 증가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노후 선박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데다, 국제해사기구(IMO)와 EU의 환경 규제로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호재로 여겨진다. 여기에 국내 조선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 선박 수주까지 나서면서 장기적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조선TOP10 ETF’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신 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지난달 기업 주식발행 줄고, 회사채 늘어”

금감원 ‘9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지난달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감소한 데 반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9월 중 주식 발행 규모는 1111억원으로 전월인 8월(3837억원) 대비 2726억원 감소했다. 무려 71.0% 줄어든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공개(IPO) 건수가 4건에 총 618억원, 유상증자 건수는 2건에 49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8월과 비교해 IPO는 73.7%, 유상증자는 66.8%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유상증자

가 부재한 가운데, 중소기업 유상증자 규모도 지난달 총 493억원을 기록했다”며 “이 역시 8월 기록한 662억원 대비 감소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반면 9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 기록한 19조7182억원보다 59.9%(11조8172억원) 늘어난 31조5354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사채는 3조710억원(34건)으로 전월 1조3970억원(16건) 대비 1조6740억원(119.8%) 급증했다. 자금용도는 대부분 차환 용도로 발행됐으며 운영자금 용도 발행비중은 줄었고 시설자금 용도는 없었다.

신용등급을 보면 주요국의 금리인하 등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A 등급 이하 비우량발 발행비중이 확대됐

다. 만기는 장기채(5년 초과)와 중기채(1년 초과 5년 이하)의 발행 비중이 상승하고, 단기채(1년 이하) 발행은 없었다.

금융채의 9월 발행 규모는 26조764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보다 9조9352억원(59.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은행채는 전월보다 100.9%(6조1512억원) 증가한 12조2453억원에 달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70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3.9%(2080억원) 증가했다.

이에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72조9873억원으로 전월 말(661조2854억 원) 대비 11조7019억원(1.8%) 늘었다.

한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총 발행액은 122조5189억원을 기록했다. CP 41조3269억원, 단기사채 81조192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833억 원(5.8%)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PLUS ETF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 한화운용, ‘美 성장주 중점’ ETF 2종 선포

S&P500 지수, 월배당 커버드콜

한화자산운용이 미국 성장주에 중점을 둔 상장지수펀드(ETF) 2종, ‘PLUS 미국S&P500성장주’와 ‘PLUS 미국배당성장주데일리커버드콜’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한화자산운용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 출시된 ETF를 소개했다.

‘PLUS 미국S&P500성장주’는 S&

P500 지수 내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가중치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IT 등 고성장 섹터의 비중을 높여 S&P 500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

‘PLUS 미국배당성장주데일리커버드콜’은 미국 성장주 중에서도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5년 연속 배당을 증가시킨 종목에 투자하는 동시에, 매일 S&P500 콜옵션을 매도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다.

/원관희 기자